

새해를 달린다

① 미술자료연구가 김달진씨

걸어다니는 미술사전 “이젠 땀다”



미술자료연구가 김달진(47)씨에게 임
오년 새해는 말 그대로 '새' 해다. 오랜
월급쟁이 생활을 접고 자기 이름이 붙은
'김달진 미술연구소' (02-3217-6214)를
냈기 때문이다.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
에서 16년,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에서 6
년을 보내며 '걸어다니는 미술사전'으
로 불리던 그였기에, 미술계에서 이 연구
소에 거는 기대는 크다.

“미술에 관한 기록이라면 신문기사 한
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
해온 만큼, 한국 미술계 자료는 우리 연구

화랑가·헌책방 뒤지며

자료수집 20여년

'미술연구소' 차려

근현대미술사 '주춧돌' 각오

전국 전시정보 샅샅이 안내

무료 월간지 첫 작업

“작고작가 인명록 시급

미술계 주소록도 긴요한데…”

소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.”

매주 금요일 오후면 큼직한 가방을
메고 서울 인사동과 사간동 화랑가를
훑고 다니던 그는, 그렇게 모은 자료들
을 잘 엮어 한국 근·현대미술사 정리에
튼튼한 주춧돌 구실을 하겠다는 의욕이
대단하다. 해방 뒤 나온 웬만한 미술자
료는 다 꿰고 있는 그가 발 디딜 틈 없
이 집안 곳곳에 차고 넘치는 그 자료들
을 어떻게 풀어놓을지가 궁금하다.

'김달진 미술연구소'가 처음 내놓은
작품은 월간 <서울 아트 가이드>다. 1월
첫선을 보인 이 무료 전시안내지는 서

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168개 전시장의
전시 정보를 낱낱이 소개하는 것 외에
미술계 자료와 토막 소식 등을 알뜰하
게 실었다. '미술 역사 속의 오늘' 같은
얘기는 김달진씨에게 가능한 사료 겸
기록이다. 원로 미술평론가인 이경성
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원고료 한 푼
받지 않고 칼럼을 연재하기로 했고, 미
술계 인사들이 <나의 발언>을 앞다투어
써주기로 약속하는 등 김달진씨 응원부
대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.

“연구소 시스템이 안정되면 작가별 자
료관리를 해주고 싶어요. 자료가 없어져
서 잊혀지는 작가와 작품이 너무 많거든
요. 작고 작가 인명록을 만드는 것도 시
급한 과제입니다. 미술가, 박물관, 미술
관, 화랑, 미술단체 등 미술계에 꼭 필요
한 주소록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. 차
근차근 해나가야 할 숙제들이죠.”

연구소가 뜨자마자 그가 해야 할 일
감이 밀려들기 시작했다. 국회가 처음
내용을 예정인 소장품 도록의 작가 약
력 정리, 2001년 미술연감의 전시회 기
록 등 김달진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
술관 일이 산더미다. 한울출판사에서
곧 나올 책에는 한국 미술관의 현장을
발로 뚫은 이야기들을 모았다.

“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기도 하지만 자
료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고 흘려버리는
풍토가 문제라고 봅니다. 자료에 대한 몰
이해와 부정확함 때문에 제대로 된 미술
사 서술이 어려울 지경이라면 이건 미술
계 발전의 큰 걸림돌이죠. 그 난제를 푸
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.”

청계천 헌 책방을 뒤지며 미술 관련
자료를 오려 모으던 김달진씨가 이제
그 스크랩북 더미 속에서 한국미술을
건져 올리려는 순간이다.

글 정재숙 기자 jjs@hani.co.kr

사진 서정민 기자 westmin@hani.co.kr